

전세계 '광주 우호·자매' 도시들, 희생자 추모·위로

미국 샌안토니오, 중국 광저우·창즈 등 50곳 서한·근조화환 보내 지난해 광주 찾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애도 전례

광주시의 해외 자매·우호 도시 50여곳이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중국 광저우·창즈시,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원저우·취안저우·칭다오시, 업무협정(MOU)도시인 중국 옌청시 등 8개 도시에서 애도 서한문을 보내왔다.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 등 세계 45곳에서 근조화환을 보내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1982년부터 광주시와 자매도시 인연을 맺고 있는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론 니렌버그 시장은 서한문에서 "광주의 자매도시 샌안토니오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다"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주유 샌안토니오한인회장도 "이번 참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대한민국

국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샌안토니오한인회는 어려운 시기에 광주시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중국 7개 지방정부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서한문을 보내왔다.

구칭지 주광주중국총영사도 서한문과 함께 5·18 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 근조화환을 보내 "이 참담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광주시민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국총영사관과 지역 내 중국교민 일등을 대표해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장님과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임해 광주시를 방문했던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도 서한문에서 "비극적인 사건은 광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촉랄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고, 저의 또한 깊은 상실의 아픔에 함께 느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여객기 참사 조사 공정하게”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4일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이 광주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말에 발생한 비극적인 상

황으로 지역사회가 큰 슬픔에 빠져있는 지금 전세계에서 이어지는 위로의 마음에 힘을 내게 된다"며 "서한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고향사랑기부 187억원...2년 연속 전국 1위

‘제주항공 참사’ 무안에 이틀간 11억원...위기극복 동참 마음 반영

전남도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87억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부금 사업과 지정기부금 사업을 개발했다.

특히 전남도의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과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사업’, 곡성의 ‘소어과를 선물하세요!’, 영암의 ‘영암맘 안심 프로젝트’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민 생활개선과 복지지원에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재기부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각지, 해외 거주 출향 도민들과 전남사랑에 서포터즈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든든한 지원군

이 되었다. 고향사랑기부 취지에 공감하며, 누리소통망(SNS)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주요 행사와 캠페인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발굴을 위해 지역축제, 향우회 모임, 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 필요성을 알리고, 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품 중심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을 도입한다. 2024년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했으며, 기부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특산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답례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고, 전남의 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금 모집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도록도 민본지를 위한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사업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기부모금액 잠정 집계 결과 무안군에 2023년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모금되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틀간 모금액이 약 11억원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고마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진상조사위 유족 참여권 보장 촉구

국토부에 조사 내용 공개 요구

광주시의회는 5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진상 규명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공항 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참사의 책임 주제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항공 분과 5인 중 상임위원 역시 국토부 협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며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의 의견 진술 등 참여권이 보장돼야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다”며 “조사위는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조사단 구성과 조사 진행 상황 등 조사 관련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재난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총력

유가족·목격자 등 심리 상담 지원

광주시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인 광주시는 재난심리지원 교육을 이수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140명을 투입하고, 유가족과 참사 목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 공포·슬픔·불안· 분노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약품이나 현장 장면의 반복적 떠오름 등 트라우마 반응, 피로·지침·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심리회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재난 현장을 목격하고 간접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마치 자신이 재난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 반응인 ‘대리외상’ 등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심리지원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면·비대면 심리 상담,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마음건강주치의(정신과 전문의) 심층 상담,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등을 운영한다.

또 심리지원에 동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고,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공모 선정...22개 시·군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도 규모·대상 확대

전남도가 농식품부의 2025년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22개 시·군 전체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예산을 배정할 일부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전남도는 5일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2024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만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2025년에는 전 시·군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2025년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검안, 구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5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 여수,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등 13개 시·군 주민 1만4000여명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첫 도입한 농촌 왕진버스 규모와 비교해 총사업비 6억원, 지원 대상 4000여명이 확대됐다. 전남도는 이·미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층 풍부한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1	1
사범	유아교육과	24	5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8	2
예능	음 악 학 부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